

아랍의 봄이 북아프리카 국가의 이슬람 금융에 미친 영향

| 김 동 환* |
Kim, Dong-Hwan

Arab Spring's influence on Islamic Finance of North African countries

Most countries, swept by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ave faced financial and economical difficulties with social instability.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untries in MENA have been also influenced by it directly and indirectly. Under this situation some of them couldn't find any solution and exit from the crisis. So there were partially some complaints expressed from the people at large and it was developed to be citizen contra in some arabian and islamic countries governed during long period of dictatorship. It brought changed social and political complexion named 'Arab spring' in arab societies.

Since Arab Spring new elected governments in Egypt, Libya and Tunisia have tried to get opportunities to secure finances for their national budgets through Islamic finance which has shown us its existence continuously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lamic finance has grown up rapidl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achieved growth of 150% during last 5 years. All financial transaction in Islamic finance should be agreed with Sharia as prohibition of Riba, Profit & Loss Sharing, prohibition of Gharar and so 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rab Spring on th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Egypt, Libya and Tunisia among the North

* 한국외대 중등연구소 연구교수, E-mail: hamidkim@hanmail.net



African countries which Islamic finance hadn't been developed well relatively even though they are islamic countries.

This research shows the financial situations and Islamic finance industry in 3 countries for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Arab Spring and how these governments have tried to get the chances for their national budgets and nations from Islamic finance. Besides it will note social problems and priority issues for adapting and developing Islamic finance with existing financial system in islamic countries.

[Key Words: Arab Spring, Islamic Finance, Sharia, financial crisis, MENA]

I. 시작하는 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에 휩싸였던 세계 각국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내홍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은 MENA(North Africa & Middle East) 지역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하부구조가 부실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¹⁾.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만이 부분적으로 표현되다가 극렬한 반정부 세력이 형성된다. 특히 오랜 기간 독재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전개되어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발전하게 된다. 아랍의 봄은 아랍. 이슬람 사회에 고착되어있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틀을 뒤흔드는 차원에서 벗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틀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파격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이슬람 금융이라는 새롭고 신선한 파격을 지구촌

1)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직전 이집트의 실업률은 2007년에 8.9% 이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9.4%에 달했으며 아랍의 봄이 발생했던 2011년에는 12%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Economy Watch(2010), "Egypt Unemployment", www.economywatch.com/unemployment/countries/egypt.html (Search: 2014.12.6.), www.theglobaleconomy.com/Egypt/Unemployment_rate/ (Search: 2014.12.6.)

사회의 금융 분야에 가져다준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 존재감을 꾸준히 보여 주고 있는 이슬람 금융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매년 두 자리 수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최근 5년간 150%의 성장을 이루었다. 말레이시아와 GCC국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슬람 금융산업은 2001년 2,620억 달러, 2008년 7,500억 달러, 2011년 1조 2,190억 달러, 2013년 1조 4,600억 달러의 자산을 규모를 보유했으며 현재 1조 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A. Demirgüç-Kunt and 2012, December 30).

본 논문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아랍의 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집트와 리비아와 튀니지의 이슬람 금융시장에 아랍의 봄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려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를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첫째, 대상 국가들이 아랍의 봄 이전까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슬람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거나 이슬람 금융이 실질적으로 전무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친 독재 정권하에서 왜곡된 금융제도가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아랍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아랍의 봄이 대상 국가들의 금융제도와 금융산업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고 그 대안으로 이슬람 금융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국가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이어서 각 연구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의 이슬람 금융의 성장이나 변화된 상황을 비교하고 이들 국가의 이슬람 금융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가 이슬람 금융을 국가 금융 제도에 접목하거나 발전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비롯해서 이슬람 금융이 지역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 현황

이슬람 금융이 현대사회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5년 부터이다. 그 해에 두바이 이슬람 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이 은행은 모든 업무를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최초의 민간 이슬람 은행이다²⁾. 이후 1977년에 ‘수단 파이잘 이슬람은행’, ‘이집트 파이잘 이슬람은행’, 쿠웨이트의 ‘Financial House’가 설립된다. 이후 이슬람 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80개가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구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슬람 은행³⁾은 영국에 22개, 미국에 10, 호주와 스위스에 각각 4개 그리고 프랑스에 3개 등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UK Islamic Finance Secretariat, Islamic Finance 2013, 4). 전 세계 75개국에서 600여개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A. Demirgüç-Kunt and 2012, December 30). 수쿠크 발행 규모는 2011년 74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급성장하여 1,395억 달러에 달했다(http://www.zawya.com_newsletter_bulletin_Sukuk-Report-4Q12). 이슬람 금융은 2014년에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 자산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이슬람 은행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78%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쿠크 거래가 16%, 이슬람 펀드가 4%를 차지하고 타

2) 1963년 이집트 ‘미트 가르르’라는 곳에서 이슬람 경제 이론을 준수하는 저축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4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Maḥmūd Muḥammad Babulla, *almasārifu alislāmiya baina alnāzariya wa altaḥḍīq*, Dār Osama lilmāshr, Amman, 1989, p141). 이것이 이슬람 은행이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최초의 모습이었다. 이후 1971년 9월 ‘Naser Social Bank’라는 정부 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어 1975년 사우디 쟈다에 ‘이슬람 개발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이 은행은 순수 은행의 기능보다는 국제 개발 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 이슬람 은행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의 모든 업무와 거래방식이 이슬람 샤리아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이슬람 전업은행과 기존의 상업은행에 이슬람 거래만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이슬람 윈도우(창구)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전업은행과 이슬람 윈도우 모두를 의미한다.



카플 보험과 이슬람 소매금융이 각각 1%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Doaa Farid 2014, January 11).

2. 이슬람 금융의 이해

최근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방식이 샤리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중 가장 먼저 준수되어야 할 조건이 이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코란에 나오는 “하나님은 장사를 허락하셨고 이자는 금지하셨다 — 바카라장 275절” 구절을 근거로 한다. 이슬람에서는 금융, 상거래 과정에 이자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이윤 획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윤 획득을 극대화하거나 지속적인 획득을 위해서 인간은 신용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나 거래 대상에 따라 샤리아에서 허용된 다양한 형태의 협업 방식으로 거래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 금융에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위해 자금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력이나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윤 추구를 목표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단어 대신에 동업자(파트너)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다. 공동사업을 통해 획득된 이윤이나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동업자들끼리 서로 공동으로 혜택을 보거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Doaa Farid 2014, January 1)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방식 외에 상품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 방식들이 있으며 그 밖에 상품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용익권을 거래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에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는 위에서 기술한 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슬람 금융에서 사용되는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거래 방식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 이슬람 금융의 여러 특징들 중에 이자 거래 금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윤과 손실의 공유(PLS - Profit & Loss Sharing)를 들 수 있다.



무라바하(المرايحة) 거래는 상품 매매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판매자가 자신이 상품을 구입한 원가와 이 상품에 추가하는 자신의 이윤을 구매 희망자에게 알려주고 구매 희망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매매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이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논쟁을 벌이고 합의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판매자가 얻게 될 이윤이다. 이 거래는 판매자의 말을 신뢰해야만 거래가 개시되는 것이어서 '신용판매'로 구분되며 이슬람 상거래 방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المشاركة) 거래는 이윤 실현을 목표로 쌍방 혹은 다자간의 동업자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거래방식이다.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이나 손실은 출자한 자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거나 부담하게 된다. 동업자들이 출자하는 자금이 동일한 비율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무샤라카 방식의 기본 개념은 대리인 계약이다. 이는 각 동업자가 상대 동업자에게 자신이 출자한 자금의 집행을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동업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다라바(المضاربة) 거래는 노동과 자본이 만나서 협업관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업에 재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노동자)과 자본력이 있는 사람(자본주)이 만나 자본주가 사업자금 전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노동자는 그 자본으로 합의된 사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윤 배분은 사전에 거래 계약에서 명시된 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손실을 자본을 제공했던 자본주만이 부담하며 노동자는 금전적인 손실은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자신이 투입한 시간과 노동을 금전적인 손실을 대신해서 부담한다.

이자라(الإجارة) 거래는 특정 기간 동안 물질적 보상에 따라 허용된 자산의 효용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하는 자산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대가를 지불하고 자산을 빌려 효용을 이용하는 임차인 간의 임대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되었던 자산은 임대인에게 환원된다. 임대되는 대상과 방식에 따라 운용임대와 파이낸싱 임대 그리고 양도조건

부 임대로 구분된다. 운용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나 파이낸싱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Fakhr Husein 'Azi 1995, 148). 양도조건부 임대계약⁵⁾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자산이 임대인에게 환원되는 것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양도조건부 임대계약은 두 건의 상거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임대계약과 다른 하나는 판매 계약이다(Muhammad Maḥmūd al 'ajiluni 2008, 271).

살람(السلم) 거래는 구매인이 상품대금을 계약현장에서 지불하고 상품은 합의된 미래의 일정애 인도되는 방식이다. 살람 거래가 기존에는 대부분 농작물 거래에 국한되었으나 이슬람 은행이 출현한 이후 그 적용범위가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산업분야에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김동환 2013, 61).

이스티스나아(الاستسناة) 거래는 구매인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상품을 생산자에 주문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order made 판매 방식을 말한다. 이 거래에서 구매인은 생산을 의뢰하는 의뢰인이며 판매인은 상품을 제작 생산하는 생산자가 된다. 이스티스나아 거래는 열매나 곡식과 같이 제조되지 않는 상품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인 산업과 농업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분야에만 적용된다(Maḥmūd Abdulkarīm Aḥmed Irshīd 2001, 117).

이스티스나아 거래에서 상품 생산에 이용되는 원자재는 생산자(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만약 원자재를 구매인(생산 의뢰인)이 조달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단순히 생산자의 노동만을 임대하는 이자라 계약이 되는 것이다(Maḥmūd Husein & Husein Muhammad, 2008, 192).

무자라아(المزارعة) 거래는 유희지의 주인과 작물을 경작할 땅이 필요한 노동자(농부) 간의 협업계약이다. 우리나라의 소작거래와 매우 유사하다. 수확은 쌍방 간의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한 쪽은 땅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노동을 제공하는 형식이다(Nazīh Hammād 2008, 411).

5) 아랍어로 الإجارة المنتهية بالملك 하고 한다.



무사카(المساقاة) 거래는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농장이나 토지의 주인이 유실수 관리를 노동자에게 맡기는 협업계약이다. 열매 수확 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열매를 분배한다. 노동자는 유실수 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농장의 담을 세우거나 길을 내거나 하는 일들은 담당하지 않는다(Muhammad Maḥmūd al'ajiluni 2008, 233).

무가라사(المغارسة) 거래는 유희지의 주인이 그 땅에 유실수를 심고 관리할 노동자와 협업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무와 열매와 땅의 일부를 합의된 비율에 따라 몫으로 갖는 조건으로 거래를 맺는다. 법적으로 압류된 땅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땅으로는 무가라사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Imām Ibn Jazai 2005, 226).

수쿠크(الصكوك)는 위에 기술된 각 거래 방식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의 이름으로서 이슬람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는 발행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1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4가지 종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쿠크 발행에 이용되는 방식은 10개 미만이며 그 중 무라바하 수쿠크와 이자라 수쿠크가 가장 많이 발행된다.

III. 아랍의 봄과 지역 국가의 경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수도 인근 시디 부사이드에서 부패한 경찰에 맞서 청년 모함메드 부아지지의 자기 희생으로 촉발된 튀니지 발 민중의 봉기는 아랍 이슬람 국가를 휩쓸었던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게 되는 민중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련의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 아랍의 봄이 지나가고 장기 독재 정권을 몰아낸 민중과 새로운 정권은 오랫동안 장기 독재 하에 고착된 기형적인 경제제도를 일거에 제거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금융 및 경제제도로써 이슬람 경제제도를 강력한 후보자로 내세웠다(Al Arabiya Digital 2011, July 11).



2011년 아랍의 봄 붐 붐기 후,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정권에 이슬람주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슬람 금융이 실업과 경제적 불균형 시대의 해결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12년 이집트에서 모함메드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나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새롭게 집권한 정권은 이슬람 원칙을 경제 분야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북아프리카 정권들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슬람 금융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튀니지 정부는 이슬람 금융과 수쿠크 발행을 통해서 자원(財源) 증대와 자원의 다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북 아프리카의 이슬람 금융시장 규모가 GCC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아랍의 봄 직후 이슬람 정권이 각 국가에 수립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민초들은 세속적인 것 보다는 이슬람적인 것을 더 요구했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슬람 금융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민중 붐기 이후 이슬람 금융을 합법화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이 지역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모로코는 2013년 최초의 이슬람 은행 설립을 계획했고 리비아는 이슬람 은행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법을 승인했다. 모로코와 리비아에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슬람 은행 자산은 전무했다.

1. 이집트

사실 3-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는 이슬람 금융의 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이슬람 금융을 무시했다. 그런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축출은 이집트에서 이슬람 금융이 새로운 모습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정치적 분열 상황으로 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관리 환경의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집트 금



용감독원(The Egypt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EFSA)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슬람 금융을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 역시 준비하지 못했다. 2012년 이집트에는 모두 14개의 이슬람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파이잘 이슬람 은행을 포함해서 3개의 이슬람 전문은행이 있으며 나머지 11개의 시중은행은 이슬람 금융 상품만을 취급하는 이슬람 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 은행은 전국에 약 200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Ahmed Lotfy and 2012, April 22).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의 후보가 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2012년 6월부터 무슬림 형제단은 수쿠크 발행이 마치 국가의 경제적, 재정적 문제를 일거에 치료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나 이슬람 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세력에 효과가 있을 새로운 헌법 제정을 서둘렀다. 지난 3월 과거 상원의회에 해당하는 슈라회의는 신헌법을 허용했다.

이집트의 이슬람 정부는 이슬람 금융 도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과 같은 산유국의 풍부한 자금의 이슬람 투자 펀드를 유치하여 경제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걸프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집트에서 산업과 농업 부문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살피면서 단지 정치와 치안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Farah Halime 2013, November 7).

그런데 이슬람 금융의 확대를 통해 경제와 재정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이집트 국민과 이슬람 금융이 새로운 투자처로 이집트를 지켜보던 해외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기대와 예상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13년 7월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이로 인해 수쿠크 국채 발행 계획과 샤리아와 부합하는 금융제도의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말았다.

이슬람 정권이 퇴출된 후, 국가 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신 군부정권 역시 이슬람 금융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2013년 12월 이집트 금

용감독원(EFSA) 위원장인 세리프 사미에 따르면 수쿠크 발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될 것이며 펀드 재원의 다원화와 국가 자본 시장 발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수쿠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Doaa Farid 2014, January 1).

이슬람 정권 퇴출 이후에도 이슬람 금융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다. 이슬람 정권이 퇴출되고 일 년도 되지 않아 이집트 최대 이슬람 대출이 2014년 4월 26일 성사되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15억 이집트 파운드(2억 1,500만 달러)규모의 대출 거래가 체결되었다. 이 자금은 나일 델타의 샤르키야 지역에 년산 50만톤의 설탕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이다. 종전에는 2013년 11월에 체결된 11억 파운드 규모의 이집트 철강의 대출 거래가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Ahmed A. Namatalla 2014, April 27).

2014년 6월 8일 이집트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압델 파타 엘시시는 ‘경제 부흥’과 ‘대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엘시시 정권은 GCC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엘시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집트에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집트 이슬람 금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슬람 은행 자산은 1,140억 이집트 파운드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의 성장을 보였다. 이슬람 은행 자산은 전체 은행 자산의 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2014년에는 이집트 이슬람 은행의 자산규모가 전년 대비 10 ~ 12% 성장하여 1,280억 이집트 파운드(미화 18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Mohamed Al-Agamy 2014, February 20). 결과론적으로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에서 이슬람 금융산업이 초기 예상보다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2014년은 이집트의 이슬람 금융이 재활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리비아

아랍의 봄 이전 리비아에는 이슬람 금융이 존재하지 않았다. 카디피 정권은



리비아의 은행 제도를 체계화하지 않고 다만 정권의 사금고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가다피 정권은 막대한 원유 수출 자금을 자국 내의 경제 성장이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유동화 상태로 보관하는 등 금융제도 관리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가다피가 이자 지불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면서도 그는 이슬람 금융 개발을 후원하지는 않았다. 프로젝트를 위한 파이낸싱은 대부분 정부를 통해 진행되거나 은행 중 한 곳이 현금이나 교환 거래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부분의 리비아인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들의 은행거래는 대부분 간단한 현찰 입출금에 국한된다. 이는 가다피가 경제와 사회를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리비아 내전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은행제도마저 완전히 파괴했다. 가다피 정권 하에서는 17개의 은행이 영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은행부문은 4개 은행만이 금융시장을 주도했다. 그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거나 중앙은행의 지분이 대부분이었다(Cii Broadcasting 2011, November 3). 하지만 리비아에서 불었던 아랍의 봄은 이슬람 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강력한 성장을 도와줄 토양을 마련했다.

가다피 정권 퇴출 후, 리비아 과도 국가위원회(NTC-National Transitional Council)는 2012년 5월 리비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리비아에 외국은행의 영업을 허락했던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상정한 이슬람 은행법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국자본 유치와 민간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Ali Shuaib 2012, May 17). 뒤이어 이슬람 금융의 발전적 움직임들이 리비아 금융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리비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기존의 금융제도에 접목하려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단행한다.

2013년 1월 7일 리비아 의회(GNC-General National Congress)는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2013-1호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들과 금융기관에 이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명확성이 불분명한 이런 조치로 시중은행과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안을 불러와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가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2014년 이슬람 은행 거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의 이슬람 은행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비아에는 7개의 외국은행을 포함해서 16개 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업하며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 거래를 일부 취급하고 있다(Al Arabiya News 2013, November 23). 지난 1월 6일 리비아 경제 장관과 일부 관료들은 자국의 은행과 경제제도를 이슬람 법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계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Ulf Laessing 2014, January 6).

리비아 사회는 신용카드는 물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며 현금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런 사회문화는 리비아가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국가들은 기존의 전통방식의 은행제도와 충돌이나 마찰을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데 리비아의 경우는 이런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비아 국민 전체가 무슬림이며 리비아 사회 저변에 이슬람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이슬람 금융의 발전을 예상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투자청에 따르면 해외 보유자산의 규모는 약 800억 달러 규모이며 리비아가 효과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와 이슬람 금융을 이용한다면 이 규모는 10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Mully Islam 2013, June 2). 리비아는 원유 수출 대금이라는 자원 덕분에 이웃한 튀니지나 이집트에 비해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금융 부문에서 빅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은행 부문의 개혁과 정부의 재무 분야의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성공적인 개혁과 함께 리비아가 안전과 국제 규정 준수 그리고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투자법이 대대적으로 보완된다면 리비아는 해외 자본의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질풍노도와 같았던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리비아에서 40년 이상을 통치했던 가다피 정권이 몰락한 후 리비아는 과도 정부와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안 불안과 민생경제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지만 리비아가 투자 대상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외국 투자기관들도 있다.

바레인의 바라카 은행 그룹의 회장이며 최고 경영자인 아드난 아흐메드 유시프는 바라카 은행은 튀니지 내의 영업확대와 함께 모로코와 리비아 시장 진입으로 보다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의 성장에 이어 2014년에도 적어도 15%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론을 비추면서 2011년 영업을 개시했던 리비아 시장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고 말했다(Arabian Business 2014, February 18).

이슬람 금융을 선도하는 GCC 국가들과 말레이시아와 비교할 때, 리비아의 이슬람 금융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먼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결과제들의 완수하여 은행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아울러 이슬람 금융의 활성화를 진행한다면 리비아는 MENA 지역에서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투자와 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 튀니지

인접한 리비아와는 달리 튀니지에는 1983년에 이슬람 은행인 '사우디 튀니지 파이낸스 하우스'가 설립되었고 바라카 은행 그룹 통폐합 과정에 튀니지 바라카 은행으로 전환되었다(www.albarakabank.com.tn/PresentationBanqueAR.aspx, Search: 2014.11.19). 2008년 6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누르(Noor) 은행이 북아프리카 이슬람 금융 사업을 위해 튀니지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발표한다(www.africanmanager.com/site_ar/detail-article.php?art_id=1186, Search: 2014.11.19). 2010년에는 자이투나 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축출되었던 벤 알리 전 대통령 정권의 압박과 기존의 다른 은행들과의 부당한 불공정 경쟁으로 이슬람 은행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2년 2월 튀니지 정부는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쿠크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며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슬람 금융기관이 전통 은행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Melissa Hancock 2012, November 7)시키는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국가 금융제도에 이슬람 금융을 접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슬람 금융제도로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적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다.

튀니지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국가 자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걸프 지역의 이슬람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8일 튀니지의 수도에서 아랍 이슬람 금융 기구의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연례회의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슬람 파이낸싱을 통한 경제 가능성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자이투나 은행이 참여했다. 자이투나 은행은 5개 은행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이슬람 개발 은행은 자이투나 은행의 지분 21%를 확보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2월 19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슬람 재정 지원이 단행되었다. 이슬람 개발은행 산하 이슬람 무역 금융공사(International Islamic Trade Finance Corporation)가 STIR 정유회사에 1억 달러와 El Fouladh 철강회사에 2천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http://www.korea-arab.org/?c=user&mcd=sub04_03a&me=bbs_detail&idx=3361&cur-page=13&sParam=, Search: 2014.11.19).

2011년 10월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인 나흐다 당이 이슬람 금융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12 금융법'을 마련했다. 튀니지 정부는 단순히 이슬람 금융 발전만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슬람 금융 도입을 시작으로 튀니지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금융 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숙되지 못한 정치적 문화적 환경으로 이런 계획이 초기 전망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다. 튀니지의 수쿠크 발행이 좋은 사례가 되겠다.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 정부는 수쿠크 발행을 선언했고 기회가 될 때 마다 정부 고위관리들은 수쿠크 발행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발행 시점이나 규모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



서 아직까지는 수쿠크 발행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튀니지 정부는 현재 튀니지 현지 은행을 포함해서 ‘시티그룹’과 ‘나티시스’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을 수쿠크 발행은행으로 선정한 상태이다(Sudip Roy 2014, October 17).

한편, 튀니지 내부의 원인으로 수쿠크 발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니지의 이슬람 금융의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슬람 개발은행은 2013년 6월 튀니지의 최초 수쿠크 발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수쿠크 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슬람 개발은행은 언제든지 튀니지의 수쿠크 발행을 지원할 것을 확인했다(<http://www.arabnews.com/new/570746>, Search: 2014,12,7).

비록 2014년 10월 총선에서 기존의 집권당이었던 이슬람 정당 나흐다당이 패배하고 세속주의 정당이 승리했으나 국가 재원 마련이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상황이 변하지 않은 한 이슬람 금융을 통해서 국가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기존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선결과제와 문제점

아랍의 봄을 겪은 국가들 중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는 은행 자산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샤리아에 부합하는 다시 말해 이슬람 금융이 적용되는 자산의 규모의 비율(전체 은행 자산의 5%)이 높다는 점이 이집트의 이슬람 금융 활성화의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법 강화와 명확한 통제, 관리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 샤리아 보드 설립 등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Zawya 2012, March 22).

글로벌 로펌 Simmons & Simmons의 리포트에 따르면 은행 고객의 수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아랍의 봄을 겪은 국가들 특히 앞에 언급했던 이집트와 튀니지 국민들의 은행 거래는 제한적이다. 이들 국가

에 이슬람 금융이 도입되면서 은행 거래 고객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거래 규모의 질적인 증가를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아랍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리비아가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1인당 GDP는 14,000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Wharton 2012, February 24).

2011년 말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은행과 금융에 관한 리포트는 이 지역의 이슬람 금융 적용의 부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제한적인 소매 금융⁶⁾. 둘째는 잠재 고객의 이슬람 금융에 관한 이해 부족. 셋째는 (과거)정부의 지원 부재가 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분은 이슬람 정당이 집권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Zawya 2012, March 22).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갤럽의 201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이집트와 모로코와 튀니지의 성인들 중 3% 미만의 성인만이 현재 이슬람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설문에 답한 대상자들의 절반 정도인 약 48%가 이슬람 은행에 대해 들어봤다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튀니지인과 예멘인과 알제리인은 각각 57%와 53%와 35%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거나 전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8%에 달했다. 조사 대상 국가의 극소수의 성인만이 현재 이슬람 은행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MENA) 지역의 성인이 세계적으로 가장 적게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A. Demirguc-Kunt and 2012, December 30).

서구 경제제도와 이자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제도에 익숙한 아랍국가에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 경제제도가 도입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금융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

6) 세계은행 world bank 의 분석에 따르면 MENA 지역의 성인 국민의 18%만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같이 아랍의 봄이 휩쓸고 간 국가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초기에는 이슬람 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슬람 정당들이 정권을 잡는 등 우세를 보였다. 이런 이슬람 정당들의 이슬람 금융 친화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외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다름 아닌 턱 없이 부족한 현지 국민들의 은행 거래가 그 중 하나이다. 2010년 UN이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은행 거래를 하는 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로코는 25%, 튀니지는 33% 그리고 이집트는 겨우 10%의 국민만이 은행거래를 한다는 것이다(Zawya 2012, March 22). 이는 이슬람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서구 금융제도 역시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민들은 집권당이 어떤 금융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느 쪽이든 새로운 사회적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상황은 이슬람 정당이나 다른 정당이 이슬람 금융을 자국 내에 적용하고 제도화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중의 소매 은행거래 규모가 작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 금융이 적용되고 정착된다면 시중 소매 은행 거래 외에 이슬람 금융이 이슬람 소액 보험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건강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슬람 금융은 낙후된 인프라 확충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튀니지는 인프라 건설에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프리카 개발 은행에 따르면 이미 북아프리카의 24개 프로젝트 계획에 소요되는 2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승인된 상태였다(Zawya 2012, March 22).

따라서 튀니지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금융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으로 간주된다. 아랍의 봄 국가들의 새로운 정부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다양한 인프라 건설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북아프리카 정부들에게는 연간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17년에는 2조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슬람 금융이 하나의 옵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선결과제를 보완한다면 이슬람 금융은 아랍의 봄 국가들 특히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리비아와 튀니지의 해외 자금 투자유치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이슬람 자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걸프지역의 이슬람 금융기관에게 이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의 북아프리카 국가의 이슬람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모습은 확연히 비교되고 있으며 아랍의 봄이 이슬람 금융의 확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이슬람 금융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가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확인한 것은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수확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아랍의 봄, 이슬람 금융, 북아프리카, 샤리아, 수쿠크]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1422 A.H.
김동환 (2013).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합한 시장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32권 2호, 53-82

[외국어 문헌]

Fakhr Husein 'Azi(1995), *Şiyagh tamwīl altanmiya fi alislām, almaḥad alislāmi li altanmiya*, Jedda.
Imām Ibn Jazai(2005), *alqawānīn alfiqhiya*, Dār alhadīth, Cairo.
Maḥmūd Abdulkarīm Aḥmed Irshīd(2001), *alshāmīl fi almuʿāmalāt alislāmiyat*, Dār alnafāis, Amman.
Maḥmūd Husein & Husein Muḥammad(2008), *almasārif alislāmiya alusus alnazriya wa altaṭbīqāt alʿamaliya*, Dār almasīra, Amman.
Maḥmūd Muḥammad Babulla(1989), *almasārifu alislāmiya baina alnazariya wa altaṭbīq*, Dār Osama lilmāshr, Amman.
Muḥammad Maḥmūd alʿajiluni(2008), *albunūk alislāmiya ahkāmuhā wa mabādiuhā wa taṭbīquhā almasrafiya*, Dār almasīra, Amman.
Nazīh Hammād, *Muḥjam almuṣtalaḥāt almāliyah wa aliqtisādiyah fi Lughat alfuqahāi*, Dār alqalam, Damascus, 411, 2008.
UK Islamic Finance Secretariat(2013), *Islamic Finance*, London.

[인터넷 자료]

A. Demirgue-Kunt, L. Klapper, D. Randall, J. Sonnenschein(2013), “Islamic Banking Remains Niche Market in North Africa”, <http://www.gallup.com/poll/166583/islamic-banking-remains-niche-market-north-africa.aspx?version> (Search: 2014.11.7.) http://www.africanmanager.com/site_ar/detail-article.php?art_id=1186(Search: 2014.11.19.)
Ahmed A. Namatalla(2014). “Egypt Shariah Loans Rise on Record Sugar Deal: Islamic Finance”, <http://www.bloomberg.com/news/print/2014-04-27/egypt-loans-on-record-sugar-deal-islamic-finance.html> (Search: 2014.11.7.)
Ahmed Lotfy and Bernardo Vizcaino(2012), “Political divisions slow Islamic finance in Egypt”, <http://www.alarabiya.net/articles/2012/04/22/209478.html> (Search: 2014.11.6.)

- Al Arabiya Digital(2011), “Arab Spring as an opportunity for establishing Islamic Finance”, <http://www.islamonline.com/news/print.php?newid=523399> (Search: 2014.7.3.)
- Al Arabiya News(2013), “Libya to Issue 3 Islamic Bank Licenses”, <http://www.libya-businessnews.com/2013/11/23/libya-to-issue-3-islamic-bank-licenses/>, (Search: 2014.11.23.) <http://www.albarakabank.com.tn/PresentationBanqueAR.aspx> (Search: 2014.11.19)
- Ali Shuaib(2012), “Libya approves Islamic banking law-official”, <http://www.reuters.com/assets/print?aid=USL5E8GHFKV20120517> (Search: 2014.11.13.)
- Arabian Business(2014), “Al Baraka Bank Eyes Libya”, <http://www.libya-businessnews.com/2014/02/18/al-baraka-bank-eyes-libya/> (Search: 2014.11.6.) <http://www.arabnews.com/new/570746> (Search: 2014.12.7.)
- Cii Broadcasting(2011), “Libya opens door for Islamic finance”, <http://www.ciibroadcasting.com/2011/11/03/libya-revolution-opens-door-for-islamic-finance>, (Search: 2014.11.8.)
- Doaa Farid(2014), “Islamic finance industry will grow in 2014”, <http://www.dailynewsegypt.com/2014/01/01islamic-finance-industry-will-grow-in-2014-al-huda-centre-for-islamic-banking-and-economics/> (Search: 2014.11.7.)
- Economy Watch(2010), “Egypt Unemployment”, <http://www.economywatch.com/unemployment/countires/egypt.html> (Search: 2014.12.6.)
- Farah Halime(2013), “SPECIAL REPORT: AFTER ARAB SPRING, ISLAMISTS TEST RELIGION IN ECONOMICS”, <http://www.rebeleconomy.com/tag/arab-spring-islamic-finance/> (Search: 2014.11.9.) http://www.korea-arab.org/?c=user&mcid=sub04_03a&mebbs_detail&idx=3361&cur-page=13&sParam= (검색: 2014.11.19.)
- Melissa Hancock(2012), “North African Islamic finance in the post-Arab Spring world”, <http://www.thebanker.com/Markets/Islamic-Finance/North-African-Islamic-finance-in-the-post-Arab-Spring-world?ct=true> (Search: 2014.7.2.)
- Mully Islam(2013), “Potential Impact of Islamic Finance in Libya”, <http://libyaintelligence.org/content/potential-impact-islamic-finance-libya> (Search: 2014.11.6.)
- Mohamed Al-Agamy(2014), “Egypt Islamic banking assets to hit USD18bn in 2014”, http://www.zawiya.com/story/Egypt_Islamic_banking_assets_to_grow_12_in_2014-ZAWIYA20140220100119 (Search: 2014.11.7.)
- Sudip Roy(2014), “Tunisia picks banks for debut US dollar sukuk - sources”, <http://www.reuters.com/assets/print?aid=USL6N0SC45920141017> (Search: 2014.



12.7)

Ulf Laessing(2014), “Libya says aims to run economy, banking system on Islamic lines”, <http://www.reuters.com/assets/print?aid=USBREA050PX20140106> (Search: 2014.11.8.)

Wharton(2012), “How the Arab Spring Creates Growth Potential for Islamic Finance”,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how-the-arab-spring-creates-growth-potential-for-islamic-finance/> (Search: 2014.7.3.)

Zawya(2012), “Arab Spring leaves fertile ground for growth of Islamic finance”, <http://www.zawya.com/story/ZAWYA20120322043907/> (Search: 2014.7.2)

http://www.theglobaleconomy.com/Egypt/Unemployment_rate (검색: 2014.12.6)

http://www.zawya.com_newsletter_bulletin_Sukuk-Report-4Q12

논문접수일: 2014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6일